

바이킹 후예들, 이번엔 ‘월드컵 동화’

아이슬란드 사상 첫 2018 러 월드컵 본선 진출

유럽예선 7승1무2패로 조1위...유로 2016 8강 주역들 포효

광주 북구보다 적은 인구 33만...국토 80% 얼음·용암지대

의사 출신 감독·영화감독 출신 골키퍼...자국 프로리그 없어

국가 차원 프로그램 성과

90년대 청소년문제 해결 위해

동네마다 스포츠센터 등 지어

전국민 생활체육 분위기 조성

핸드볼·농구 등 국제무대 활약

아이슬란드 첫 월드컵 본선 진출

- 면적: 103,000㎢ (한반도의 1/2)
국토의 80%가 빙하 및 용암지대
- 인구: 33만명(2015년)
- 정부체제: 내각책임제
- GDP: 국내총생산(GDP): 165억 달러(2015)
- 실업률: 4.4%
- 종교: 루터교(81%), 레이카비크주교교회(2.1%), 카톨릭(2%)
- 축구 주요 성적 (자국 프로축구 리그 없음)
 - FIFA 랭킹: 22위 (2017. 9. 14 기준)
 -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첫 본선 진출
 -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본선 16강에서 잉글랜드를 꺾고 첫 8강 진출
 - 2018 러시아월드컵 유럽예선 1조 1위로 첫 본선 진출

자료: 외교부 연합뉴스



아이슬란드 선수들이 9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예선 코소보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인구 34만 명의 작은 나라 아이슬란드는 이날 코소보를 2-0으로 물리치고 조 1위를 확정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북구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 아이슬란드 동화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지난해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8강에 진출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아이슬란드는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아이슬란드는 10일 2018 러시아월드컵 유럽예선 1조 코소보와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해 7승 1무 2패 승점 22점으로 조 1위를 확정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헤이미르 할그림손(49)감독, 영화감독 출신 골키퍼 하네스 할도르손(32) 등 유로 2016의 주역들은 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자 다시 한 번 포효했다.

아이슬란드는 총인구 33만 명에 불과한 소국이다. 광주시 북구(44만 명)보다 인구가 적은 데다 국토의 80%가 빙하 및 용암지대로 이뤄진 척박한 나라다. 자국 프로축구 리그가 없고 불과 7년 전까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112위에 불과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아이슬란드는 기록을 쓰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본선에 진출했고, 16강에서 축구 중 주구 잉글랜드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불과 일 년 뒤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터키 등 만만찮은 상대들이 몰린 1조에서 러시아행 티켓을 따냈다.

아이슬란드의 러시아월드컵 진출은

20년 전 발동한 국가 차원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아이슬란드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의 약물 복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현지 언론 아이슬란드 리뷰에 따르면, 당시 아이슬란드는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과 흡연을 등이 유럽 내 최고 수준이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청소년 비행 문제

해결을 위해 1998년 국가 차원의 사회 복지 사업을 펼쳤다. 동네마다 스포츠센터와 체육관을 짓고 청소년에게 체육 활동을 권장했다. 학교와 가정에는 스포츠 활동 지원책을 마련해 청소년들의 이탈을 줄여나갔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흡연을, 알코올 중독률 등이 매우 줄어들었다. 대신 청소년 스포츠 인구가 대폭 늘

면서 전국민적으로 생활 체육 분위기가 조성됐다.

건강한 토양을 다진 아이슬란드는 엘리트 스포츠에서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국제무대에서 깜짝 성적을 낸 건 축구뿐만이 아니다. 핸드볼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농구는 2017유로 바스켓 대회에서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아이슬란드의 경제 상황도 국제무대 성적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아이슬란드 리뷰는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엘리트 스포츠에도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에도 직업을 다시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인구가 적은 아이슬란드에서 엘리트 스포츠가 활성화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국가가 주도한 사회 시스템 덕분”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위기의 신태용호에 믿음·신뢰 주는 게 중요”

K리그 클래식 상위 팀 감독들

K리그 클래식 상위 팀 감독들은 현재 축구대표팀의 위기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강의 전복 현대 감독을 비롯한 클래식 1~6위 팀 사령탑들은 10일 스포릿 라운드(34~38라운드)를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러시아와 평가전에서 2-4로 패배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신태용호는 이날 모로코와 유럽 원정 2차전을 가졌다.

최 감독은 “대표팀 문제는 너무 광범위해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표팀에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감독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리고 앞으로 4년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떤 감독이 맡아도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 박희진 감독대행도 신태용 감독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다.

제주 조성환 감독은 “대표팀에 자신감과 분위기가 중요하다. 열심히 대표팀을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스포릿 미디어데이에서 상위 스포릿 진출 6개 구단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FC서울 황선홍 감독, 울산현대 김도훈 감독, 전북현대 최광희 감독, 제주유나이티드 조성환 감독, 수원삼성 서정원 감독, 강원FC 박희진 감독(대행). /연합뉴스

응원하겠다”고 했다.

울산 김도훈 감독도 “믿음과 신뢰를 줘서 선수들이 편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수원 서정원 감독은 “대표팀이 흔들리지 않게 주위에서 응원을 해주는 게 월드컵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C서울 황선홍 감독은 선수들의 투지 넘치는 활약을 강조했다. 그는 “축구를 잘하는 것은 굉장하지만, 공방이 가깝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러 “팬들은 대표팀이 5-0, 6-0으로 이기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 쓰러질 때까지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며 “후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최적의 베이스캠프 선정하라” 신태용호 발걸음 분주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8개월여 앞두고 최적의 베이스캠프를 선정하기 위한 월드컵 본선 진출국들의 정보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신태용호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0일(이하 한국시간) “유럽 원정 2연전에 나선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모로코와 평가전을 마치고 나서 선수단과 따로 움직일 예정”

이라며 “외국인 코칭스태프 면전에 이어 러시아 월드컵 베이스캠프 답사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신태용 감독은 11일 김호근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과 함께 스위스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해 외국인 전술코치와 피지컬 코치 후보군 면접을 치르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날아간다.

신 감독과 김 위원장은 모스크바에서 687km 떨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해 2곳의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조 추첨 결과에 따라 최종 베이스캠프의 위치가 최종 결정되지만, 공방이 가깝고 기후 조건과 훈련장 시설이 좋은 곳을 일찌감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러시아 월드컵 조직위원회로부터 베이스캠프 후보지 70여 곳의 정보를 전달받아 지난일부터 점검에 나서 후보군을 5개 곳으로 압축했다. 신 감독은 축구협회에서 먼저 돌아본 후보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최적의 훈련조건을 갖춘 베이스캠프를 확정하기로 했다.

신 감독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후보지 2곳을 확인한 뒤 모스크바로 이동해 월드컵 경기가 치러질 루즈니키 스타디움과 오프크리타에 아레나를 둘러보고 나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남 선수단 “전국체전 12위 목표”

제98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둔 전남체육회 선수단이 출전에 앞서 필승 의지를 다진다.

전남체육회는 11일 오후 전남도 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이재영 행정부지사 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한 임원·선수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결단식을 갖는다.

결단식에서 전남은 종합성적 12위를 결의하며 대회 기간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전남은 46종목 162종별에 1659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지난해 157개의 메달로 2만8791점을 기록했던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는 반드시 3만 점대를 기록하겠다는 각오다.

전남은 육상, 정구, 태권도, 양궁 등에서 금메달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8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남자 육상 5000m의 백승호(경향대학교)와 4연패에 도전하

는 태권도(-53kg)의 임금별(한국체대), 여자 양궁 리커브의 이은경(순천대), 남자 유도 이승수(여수시청) 등의 금메달 작성을 예상하고 있다.

핀수영의 김보경(전남체육회), 배영 50m의 원영준(전남수영연맹)은 한국 신기록에 도전한다.

전남체육회는 또 골프, 근대5종, 볼링 등의 기록종목과 축구, 수구, 세팍타크로 등 득점폭이 큰 단체 종목과 투기 종목에서 선전한다면 성적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체육회는 메달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지역을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승선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 선수단은 명절에도 쉬지 않고 경기력 향상에 노력을 해왔다.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프로축구 부산 조진호 감독 심장마비로 별세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 부산 아이파크 조진호(사진) 감독이 10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44세.

부산 구단 관계자는 이날 “조 감독님이 숙소에서 출근길에 쓰러지신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시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감독은 작년 11월 상주 상무에서 부산 사령탑에 올랐다.

그는 현재 K리그 챌린지에서 부산을 경남 FC(승점 70)에 이어 2위(승점 61)로 이끌며 내년 시즌 클래식 진출에 대한 희망을 키워왔다.

이들 전인 지난 8일 경남 FC와 맞대결이 고인의 생애 마지막 경기가 됐다. 경남 FC



를 승점 6점 차로 추격하던 지난 8일 치른 맞대결에서 부산은 0-2로 아쉽게 패하며 사실상 챌린지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조 감독은 18살이던 1991년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청소년 축구선수권 남북단일팀에 선발돼 공격수로 활약하며 8강 진출에 기여했다. 19살이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축구대표팀에 뽑혀 최연소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 선발전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연합뉴스